우송대학교

새싹 편지

2010.6월호

이달의 소식

Woosong News

- 1학년 현장견학
- 4학기제 시작하다!
  - · 4학기제에 대하여
  - · 긴 공강시간에는
  - · 여름학기 수강과목

Our Story

- 시험끝나고 하고 싶은 것들
- 월드컵 응원

Woosong News

1학년 현장견학

2010년 6월 23일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들은 대전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현재 전국에 24개소를 운영 중이며, 저소득 기혼 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여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보장하고, 영세 중소기업체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근로자의 이용편의를 도모 할 수 있는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기업 간 복지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 되고 있습니다.

대전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만 1,2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반 2개, 만 3세를 대상으로 하는 반 1개, 만 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반 2개로 구성되어 총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가구들, 교구장, 작품전시 등은 아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견학은 여름학기를 맞아 '아동복지론'과목을 배우고 있는 1학년 학생들에게는 현장에 대해서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4학기제 시작하다!

4학기제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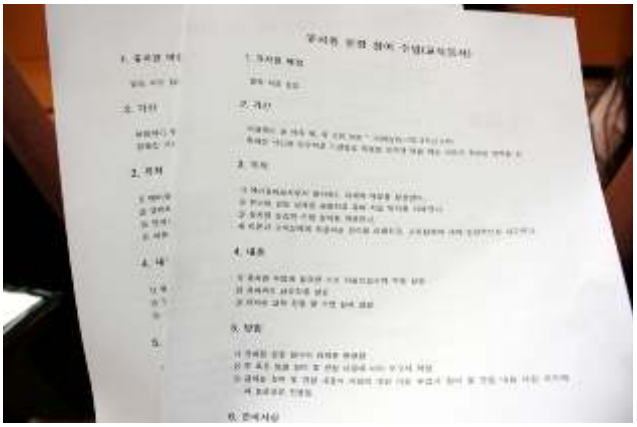
우송대학교 학생들은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할 때 또 다른 학기인 여름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름학기는 4학기 중의 하나의 학기로 학생들이 방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학교에 나와 자격증 취득이나 복수 전공을 목표로 수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4학기제를 진행하면 학생들은 3.5년으로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학기제는 모든 대학과 사회에 큰 이슈가 된 만큼 학생들의 찬, 반 의견도 많았습니다. 찬성하는 측으로는 조금 더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반대하는 측으로는 방학동안 등록금을 위해 알바 하는 학생들, 타지에서 와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름학기가 시작되자 4학기제를 잘 따라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학교 측과 교수님들은 기특함과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긴 공간시간에는?

여름학기는 본 학기와 다르게 공강 시간 이 길어 학생들이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 공강 시간 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강 시간이 길어 쉴 수 있어서 좋다는 학생들도 있었고, 집이 먼 학생들의 경우 아침에 밥을 먹고 오지 못한 학생들은 일찍이 밥을 먹은 후 도서관으로 달려가 시간을 때우는 학생이 매우 많았습니다. 또 학교 앞에서 자취 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 잠을 더 자기도 한다며 짧은 수업시간과 긴 공강 시간에 대해 불평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학생들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긴 공강 시간을 잘 활용하여 자격증 준비나 시험 준비들을 하면서 지낸다면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학기제가 학생들에게 독이 아닌 약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취지로 시작된 여름학기가 학생들의 무한한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과의 여름학기 수강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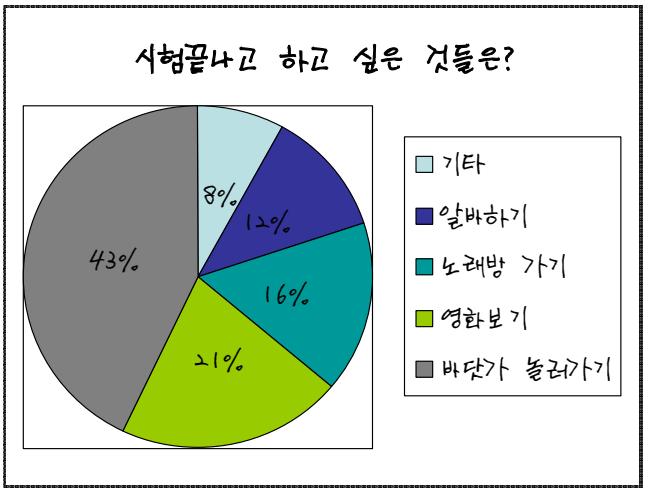
유아교육과는 여름학기 수강과목으로 1학년은 아동복지론, TOEIC, World Student English가 개설 되었으며, 2학년은 유치원 관찰 및 실습과 미술치료이해가 개설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 저녁까지 공부 하는 1학년 학생들은 불평불만을 내뱉기도 하지지만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아동복지론 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발 더 앞서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론 수업의 일련으로 24일에는 학교 근처 '대전 근로 복지 공단 어린이집'을 방문하였습니다.



2학년은 실습이라는 말이 조금 이르긴 하지만 봉사의 차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 유치원에 나가 교육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상호작용도 하고 흥미영역의 구성과 생활주제 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교사들을 도와 교구를 만들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1학년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실습만 하는 것이 아닌 일주일에 3일은 현장에 나가 본 것들에 대해 각자의 유치원에 대한 것들을 토론하며 다양한 현장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3주 동안 세분의 교수님들이 일주일 동안 각 파트를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2학년은 이 유치원 관찰 및 실습이 끝난 후 부터는 두 분 교수님으로부터 미술치료에 대한 강의가 시작 될 예정이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Our Story

시험끝나고 하고싶은 것들



남녀 구분 없이 대학생 100명에게 시험이 끝나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물어본 결과 43%가 "더운 여름이니 바닷가로 놀러가고 싶다"라고 답했고, 21%가 "친구와 영화 보러 갈 것이다"라고 답했고, 16%가 "노래방에 갈 것이다", 12%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8%의 기타의견으로는 토익학원에 등록한다, 외국 여행가고 싶다, 자고 싶다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대학생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들도 중, 고등학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계획들은 대부분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업에 치여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여가 생활들을 즐기고 싶은 대학생의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학업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 응원!

2010년 6월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뜻 깊은 한 달일 것 같습니다. 바로 월드컵 때문입니다. 6월 11일부터 시작한 남아공월드컵.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기원하며 너도 나도 성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먼저 12일 열린 대한민국 vs 그리스! 전반부터 우리나라가 볼을 독점하면서 경기를 이끌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올린 공을 받아 수비수인 이정수 선수의 오른발 골! 이로서 16강을 향한 첫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후반에는 우리의 산소탱크 박지성선수가 추가골을 넣으며 2:0! 그리스를 완파하여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 17일 열린 대한민구 vs 아르헨티나! 전반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메시가 찬 프리킥이 박주영 선수의 발을 맞고 들어가 자살골이 됩니다. 후에 또 이구아인이 헤딩으로 한 골 더.. 2:0의 안타까운 상황! 그러나 전반 종료 직전 이청용 선수의 오른발 슛이 골문을 흔들며 기분 좋은 추격을 발판을 마련하며 전반이 끝났지만 후반 이구아인의 해트트릭으로 두골을 더 내어준 후 심판판정에 정말 의문을 제기하지만 4:1으로 경기 마감...4:1의 충격적인 결과지만 태극전사들은 힘내세요! 16강 티켓을 쥘 것인지.. 예선 마지막 경기 23일 대한민국 vs 나이지리아! 첫 골은 나이지리아 선수에게 내어 주었지만 기성용 선수가 올린 공에 이정수 선수가 다시 헤딩! 그리스 전을 떠올리게 만들며 다시 한골을 만들어낸 두 선수! 그리고 후반 박주영 선수가 오른발 프리킥으로 골문을 열어재치며 아르헨티나전의 설움을 날려 보냈습니다. 그 후 교체 투입된 김남일 선수의 무리한 수비로 야쿠부의 페널티킥으로 다시 2:2. 무승부로 막을 내린 후 아르헨티나의 승전보에 우리는 다시 열광했습니다! 바로 16강에 진출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드디어 16강! 대한민국 vs 우루과이! 월드컵사상 최단 시간 실점으로 1:0, 그리고 이청용의 만회골, 다시 실점....2:1의 안타까운 패배, 하지만 우리의 태극전사들은 남미의 강호에 맞서 아주 끈질긴 사투를 벌였습니다. 비록 8강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보여준 뜻깊은 시간이였고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유아 상식

성격에 따른 육아법 Ⅲ

산만한 아이

아이가 집중 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은 아주 짧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변 환경 자체가 아이들 마음을 산만하게 해서 주의 집중을 못하게 하는 원인 인지 살펴보고 원인을 없애주세요 책을 읽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Tv를 틀어 놓으면 당연히 집중 할 수 없게 되므로 아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Tv를 꺼 주세요.

의존적인 아이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번번히 잘 되지 않거나 엄마가 없을 때의 불안을 경험한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이때는 동화책 보기, 놀이 등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늘여보세요. 아이는 차츰 혼자서도 잘 노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졸졸 따라다니는 시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못하게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옆에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항상 부정적인 아이

만 1세~2세 사이의 아이들에게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자가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양육자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게 됩니다. 강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항상 부드럽게 말하세요. 또 "~~ 할래?" 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말을 사용할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출처 ; 미소담은재활운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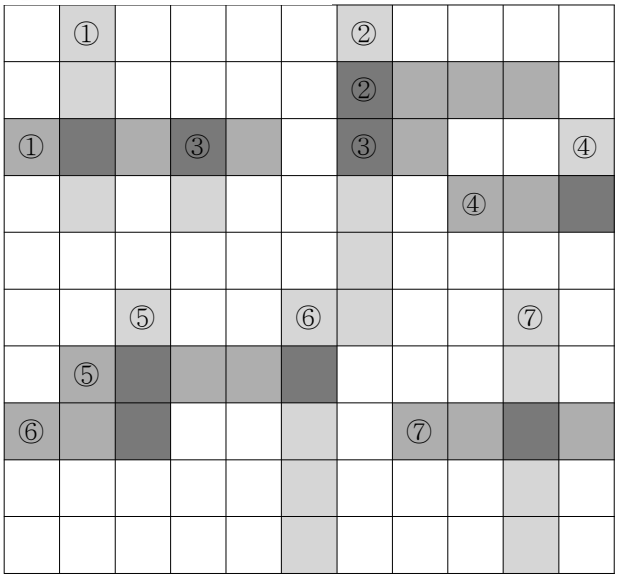
십자말 퀴즈

가로 열쇠

① 고아와 빈민들을 위해 평생을 교육에 바친 교육실천가
② 아직 정신적인 조작을 할 수 없는 ○○○○사고기
③ 환경과의 효율적인 상호작용. 환경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동화하고 조정하는 이중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남.
④ 듀이는 교육의 과정을 상호작용, 변화와 이것에 의한 경험의 재구성으로 봄
⑤ 조화롭고 표현적인 움직임
⑥ 좌우반구의 전문화
⑦ 놀이의 목적은 소모된 에너지의 재생이라는 이론

세로열쇠

① 교실을 4가지 공간으로 구분하여 공간 구성 기준표를 제시한 학자는?
② 파블로브가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소개한 것
③ 백지설을 가장 중요한 기본 교육 사상으로 둔 학자는?
④ 본능, 자아, 초자아의 세가지 요소의 구성
⑤ 하고싶은 일이나 해야 할 일을 못했을 때 또는 정당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어 해소하고 편안해지려 하는 행동
⑥ 어떠한 패턴이나 모티브의 끊임없는 반복
⑦ 헝가리 작곡자에 의해 개발된 음악교육방법



<발행처>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http://childedu.wsu.ac.kr

042) 630-9360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300-718)

<발행인> 성원경 <편집인> 이예지

<만든이>

* 박민정 : http://www.cyworld.com/77-5-22-4-8-6
* 안선경 : http://www.cyworld.com/01020434837
* 이예지 : http://www.cyworld.com/ukyo-
* 김소담 : http://www.cyworld.com/ekath7962
* 송하나 : http://www.cyworld.com/01066014827

지난호 정답